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1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팍팍한 우리 마음을 은혜의 단비로 적셔주시고, 새 마음과 새 뜻을 우리 속에 새겨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시오.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누구를 대하든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맡겨진 일을 정성껏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생명임을 드러내 보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순결한 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골1:12-14 인도자

♠ 교 독 문 67. 신년 예배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408.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함께

성경봉독 요5:17-20 김중수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아버지와 아들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23. 나 형제를 늘 위해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받드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의 뜻을 등지고 얻는 성공이나 승리는 결국 인생을 암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예’ 하며 따르게 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송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임원헌신예배	1월 기도의 밤
말씀 : 김기석 목사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지은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이형숙 집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창운	고사일 곽혜자	허정윤 최영선
	헌금위원	김철수 김준호	하현철 구명자	안정숙 박홍재

파랑새

새해가 되었다고 모두 기뻐들 한다. 새해가 되었다고 무엇이 기쁜 건가. 이 나라에 할 일은 태산 같고 우리의 갈 길은 아득히 멀다. 그러나 내게 할 힘이 있어 할 일이 있고 내 앞에 남은 날이 있어 갈 길이 멀다면, 새 날과 새해를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 날과 새해란 모두 마음의 장난이다. 물질 세계에 새 것이 있을 리 없고 정신 세계에 묵은 것이 있을 리 없다. 정신은 영원히 새롭고 물질은 만고에 묵은 것인데, 어제와 내일의 틈바구니에서 오늘의 새날이 새어나오고, 자연과 신령의 틈바구니에서 인생의 새 삶이 새어나온다.

틈바구니에서 새어나오는 것이 새 것이요, 언제까지나 새에 끼어 있는 것이 새끼들이다. 어두운 하늘에서 수많은 별빛이 새어나온다. 얼어붙은 대지 위에 겨울의 흰 눈이 뽀짝이고 있다. 하늘의 별이 뽀짝이고 대지의 눈이 뽀짝일 때 우리의 생각도 뽀짝이면, 하늘의 은하수, 땅의 은하수, 사람의 은하수가 빛나게 되지 않을까. 새해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자. 과거 앞에 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며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자가 되지 말고 산 자를 산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새해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때는 첫새벽이요, 곳은 해뜨는 곳, 사람은 새로 난 사람이다. 새 하늘 새 땅 새 사람. 새야 새야 파랑새야. 새 시대 새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날아들고 있다. 정신은 영원히 묵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깨면 정신이요, 정신은 새 것이다. 자연은 물질이요, 물질은 묵은 것이다. 이른 새벽에 천지를 울리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새해

찰나란 무엇을 결정하려는 순간이다. 어떤 남자와 평생을 살려고 결정하려는 순간이 찰나다. 이 찰나의 결정이 평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찰나 속에 영원이 있다고 한다. 사람에게에는 한 순간에 영원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영원을 결정하는 이 순간은 매서운 순간이다. 이

순간이 있기에 사람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다. 이 순간은 생명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다. 영원이 시간을 뚫고 들어온다고 해도 좋다. 이 순간에 허무한 생은 사라지고 뜻있는 생으로 탈바꿈을 한다. 죽어야 할 인생이 죽지 않는 인생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순간을 가졌기에 소크라테스도 영원하고 바울도 영원하다.

구원은 내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순간에 있다. 이 순간이 있는 곳에 내일은 내일이 아니요, 어제는 어제가 아니요, 오늘은 오늘이 아니다. 이 순간 있는 곳은 어디나 영원이다. 오래 사는 것도 영생이 아니요, 다시 사는 것도 영생이 아니다. 영생은 장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요 재생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영생은 순간에 있다. 순간이란 시간을 초월한 순간이다. 시간을 초월했다는 말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이다. 진리를 위하여 바쳐진 삶은 어디서나 영생이다. 진리의 세계는 실천의 세계다. 영생은 실천 속에 있다. 자기의 할 일을 자기가 할 때에 그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다. 진리란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자기의 할 일을 안 사람에게는 일하는 것이 그대로 즐거움이다.

일 밖에 따로 삶이 있을 수 없다. 일에 짓눌린 인생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이가 그리스도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 속에 새것이 있고 새것 속에 참삶이 있다. 새해는 일해요, 일해는 내해요, 내해는 참해다. 참회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참 사는 것이다.

순간을 잡아타라

오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빛의 속도로 빨리 달아나고 있다. 달아나는 말을 잡아타는 능숙한 말꾼처럼 지나가는 순간을 잡아타야 한다.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시간이기에 달아나는 사슴처럼 한번뿐인 인생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기의 시간을 잡아탈 수 있는 인생만이 인생을 천 배로 늘릴 수가 있는 것이다. 찰나 속에 영원이 있다고 한다. 천 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늘릴 수도 있다. 내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오늘 속에 벌써 내일은 깃들여 있는 것이다. 인생은 하루 속에 영원을 간직할 수가 있다. 생의 허무를 한탄하고 음악 속에 영감을 집어넣어 베토벤은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천 배뿐이 아니다. 헤아릴 수 없이 늘인 것이다.

장 단 집, 말 단 집

말이 단 사람을 경계하는 의미로 ‘말 단 집’과 ‘장 단 집’을 비교하는 것이 재미있다. 같은 말도 그렇게 하니 재미도 있고 뜻도 분명해져 기억하기가 좋으니, 때론 말도 그림을 그리듯 할 일이다.

말이 달다는 것은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좋지 못하다는 뜻이다. 기쁨을 바른 듯 말은 그럴 듯이 진수성찬 차리듯 하지만 결국은 무엇 하나 쓸 것이 없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 내 앞에서 진실과는 상관없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이는 결국 내가 없을 때에는 내 험담을 늘어놓는 법, 결국 분쟁과 갈등은 입 단 사람에게서 시작되기 마련이다.

‘말 단 집에 장 단 법 없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말 단 집에 장이 곧다’, ‘말 단 집 장맛이 쓰다’ 등, 장과 말을 연관시키는 속담이 적지가 않다. 장과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장 단 집에 가는 거야 즐거운 일이지만 말 단 집에는 가지 말라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을 아예 상종하지 말라고 옛 속담은 이르고 있는데, 지금의 나는 어느 집을 들락거리며 누구 말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지나치게 바쁘고, 복잡하고, 산만한 삶은 상상력을 소멸시킵니다. 고요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상상력을 잃게 됩니다. 상상력을 잃으면 꿈을 꿀 수가 없고, 꿈을 꾸지 못하면 우리가 무얼 원하는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환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양재성 임미심 김중수 이순정 왕성한 강순배 장영숙 김근종 정옥영
이은옥 김희진 박홍재 고광송 이춘희 김금순 권미숙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조항범 오현정 서정순 이동천 왕수명 이소순 문인옥
이경남 이호원 윤주원 최윤선 권미정

감사헌금:

윤정덕 구성실 백혜숙 왕성한 강순배 류준모 심호선 오진훈 노순옥
고재중 정현창 김남홍 방문성 박혜경 김정길 최숙화 한선희 신윤정
이재구 한선희 조두희 오연훈 박홍재 김용진 박효선 하재두 권미숙
김순복 김필순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희우 안종일 홍순구 안홍숙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김기석 김희우 무명1 (누계- 23,950,000원)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심	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신년주일** : 한 해 내내 주님께 예배드림이 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2. **헌신예배** : 오늘 오후집회는 임원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새로 임원이 되신 분들, 각 선교회의 회장과 인도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3. **사경회** : 1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경회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MYF는 오전 9시부터, 장년은 오후 1시부터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기도의 밤** : 1월 10일(수) 저녁 7시 30분에 모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5. **봉헌주일** :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일년 동안 작성하는 십일조헌금 혹은 월정헌금을 봉헌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6. **구역회** : 교회의 일년 살림을 계획하는 구역회가 21일 오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 캄보디아 우물 헌금: 김윤수, 시므온 선교회

김재광(결혼기념일) 김철수(새해) 이교영(새해)

< 새교우 소개 >

2701 임주빈 소속: 4남선교회
 최현욱 소속: 5여선교회
 임유미 소속: 청년부
 임창국 소속: 중고등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